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1. 7. 25(일)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선정 - 포항·경산·의성 선정, 국비 495억원 확보	맑은물정책과	
② 전국 최고, 경북 119구조견 '제우스·민국' 은퇴 - 7년간 인명구조 44명, 전국 구조견 경진대회 3년 연속 우승	119특수구조단	사진별첨
③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가능성 높인다 -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운영협의회 운영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전략 마련	환경정책과	사진별첨
④ 프리미엄 딸기 '알타킹' 해외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 '알타킹' 싱가포르, 홍콩 등 6개국 수출량 지난해 보다 약8배 증가 - 수출딸기통합조직(K-Berry), 프리미엄 수출 딸기로 '알타킹' 선정	농업기술원	사진별첨
⑤ 경북도, 폭염 대비 긴급 현장 점검 실시 - 무더위쉼터 및 선별진료소 점검, 취약계층 애로사항 청취	자연재난과	사진별첨
⑥ 경북도 육성 포도 월드스위트 , 루비스위트 통상 실시 계약 - 농업법인 등 8개 업체와 통상실시 계약, - 22년부터 27년까지 12만 4000주 보급 - 수입포도 대체할 씨 없는 신품종, 당도가 높고 식감이 우수해 젊은층에 인기	농업기술원	사진별첨
⑦ 소비자 복숭아 당도 12브릭스 이상 돼야 달다 - 경북농업기술원, 대구 소비자 대상 품질선호 설문조사	농업기술원	
⑧ 경북의 아들 김제덕, 남은 금 2개도 뺐라 (추가) - 이철우 도지사, 김제덕 선수의 부친 김철규씨 만나 축하·격려 - 대한민국 첫 금메달, 최연소 금메달 획득 축하	체육진흥과	사진별첨
⑨ 경상북도, 사적모임 '3단계' 격상...전국 동일 - 7월 27일부터 8월 8일 까지 2주간 - 인구10만 미만 시군은 자율적 운영	보건정책과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7. 25(일)】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맑은물정책과			
		작성자	과장	박기완		
		연락처	담당	홍경식	주무관	홍순일
		054-880-3582				

경북도,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선정

- 포항·경산·의성 선정, 국비 495억원 확보 -

경상북도는 환경부 사업인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포항시, 경산시, 의성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717억원(국비 495, 지방비 222)을 확보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하수처리 소과정에 대한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관리, 지능화 등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9월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별 심사를 거쳐 전국 13개 시도 33개소가 최종 선정이 됐으며, 경북은 포항시, 경산시, 의성군이 선정돼 국비 49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2012년 ‘산바’, 2016년 ‘차바’, 2018년 ‘콩레이’로 인한 저지대 침수, 도로침수 및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일대에 ICT 기반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체계 구축, 도시침수 실시간 위험분석체계 구축 등 포항시의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도시침수)에 140억 원(국비 98, 지방비 42)을 확보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주거 밀집지역인 죽도동, 해도동, 상대동 일원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하수도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ICT 기반 실시간 악취관리 시스템, 악취측정기 및 저감장치 설치 등 포항시의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하수악취)에 국비 350억원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2000년 준공 이후 지속적으로 처리시설을 확장한 경산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40,000m³/일)과 2003년 준공한 의성군의 의성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8,000m³/일)에 대하여 인벤토리 DB구축 및 시설진단, 운영자료 조사, 잔존 수명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하수도 자산관리 선도 사업에 각각 국비 18억원, 12억원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의 의성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의성군민의 25%(1만 3000명) 정도가 사용 하는 중요 시설물로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통해 방류수질 개선 및 처리효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ICT 기반 계측·감시시스템, 디지털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등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에 32억원(국비 16, 지방비 16)을 확보했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노후한 지역 하수도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스마트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7. 25(일)】	담당부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작성 자	단 장	김 난 희		
			소방령	김두형	소방경	김주현
연락처	054-880-6513					

전국 최고, 경북 119구조견 ‘제우스·민국’ 은퇴

- 7년간 인명구조 44명, 전국 구조견 경진대회 3년 연속 우승 -

경북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에서 활동하던 인명 구조견 ‘제우스와 민국’ 이가 지난 23일 수색 구조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영예로운 은퇴를 했다.

이번에 은퇴한 119 구조견 ‘제우스와 민국’ 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배치돼 7년 여간 500여 건의 구조 현장에 출동하여 44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했고, 매년 실시되는 소방청장배 전국 구조견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단체전 우승이라는 대기록도 남겼다.

그 외 도내 각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경북지방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고, 지난해 9월 구미에서 발생한 실종사고 구조현장에서 제우스는 MBC와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 보도돼 전국적인 스타가 되기도 했다.

구조견과 동고동락했던 119 특수구조단 핸들러 권우규·박성훈 대원은 정들었던 구조견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은퇴 이후 남은 기간 편안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반려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제우스와 민국이 은퇴함에 따라 새로운 인명 구조견 2두를 도입하여 구조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인명 구조견 ‘해찬’ 은 2018년 3월 출생한 셰퍼드로 재난 1등급과 산악 2등급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하늘’ 은 2018년 10월 출생한 마리노이즈로 재난 및 산악 1등급 자격을 부여받은 우수한 인명 구조견이다.

인명구조견은 18~24개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받고 인증 평가에 합격해야 되며, 구조견으로 활동 중에도 매 2년 정기평가를 통해 수색 구조능력을 검증받고, 매년 강도 높은 수준유지 훈련을 거쳐 최상의 구조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김중근 경북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구조견 사육 관리와 교육훈련에 철저를 기해 119 구조견들이 최상의 수색 구조능력을 유지하고 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별첨>

119구조견 신규배치 및 퇴역 구조견 현황

❖ 119특수구조단의 수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인명구조견 「해찬·하늘」 신규배치 및 퇴역 인명구조견 「제우스·민국」 은퇴 계획임.

I 신규배치 인명구조견 현황

○ 배치일자 : 2021. 7. 23.

견 명	해찬	핸들러	소방교 이병욱	
견 종	독일산 셰퍼드	출생일	2018.03.29.	
도입일	2021.07.23.	성 별	♂(수컷)	
공인등급	복합 구조견	자 격	재난1급, 산악2급	
견 명	하늘	핸들러	소방교 박주현	
견 종	마리노이즈	출생일	2018.10.05.	
도입일	2021.07.23.	성 별	♂(수컷)	
공인등급	복합 구조견	자 격	재난1급, 산악1급	

II 은퇴 인명구조견 현황

견 명	제우스(Zeus)	출생일	2012. 01. 13.	
견 종	LR(레브라도 리트리버)	성 별	♂(수컷)	
핸들러	소방위 권우규	자 격	Lavel A 산악·재난	
출동건수	273건	구조인원	25명	
견 명	민국(Min Guk)	출생일	2012. 04. 27.	
견 종	German Shepherd Dog	성 별	♂(수컷)	
핸들러	소방위 박성훈	자 격	Lavel A 산악	
출동건수	230건	구조인원	19명	

III 은퇴 인명구조견 활동내역

○ 민국

- 구조출동 230건, 구조인원 19명
- 2019년 5월 고령군 대가야읍 구조현장에서 이틀동안 발견하지 못한 요구조자를 1시간만에 발견하고 안전하게 구조하여 고령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받음.
- 2020년 6월 영천에서 발생한 실종사고에서 요구조자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구조하여 경북지방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받음.

○ 제우스

- 구조출동 273건, 구조인원 25명
- 2016년 4월 군위군 군위읍 용대리 구조현장에서 30분만에 요구조자를 발견하여 군위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음.
- 2020년 9월 구미시 산동면 구조현장에서 2시간 만에 요구조자를 발견하여 안전하게 구조한 내용이 MBC-TV, 유튜브 등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전국적인 스타가 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7. 25(일)】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권경수			
			사무관	김용철	주무관	김정훈	
		연락처	054-880-3525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가능성 높인다

-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운영협의회 운영 -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전략 마련 -

경상북도는 경북 동해안 일대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고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는 22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2차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운영협의회’에서 동해안 지질공원사무국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마련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전략’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깊이 있는 논의와 의견을 나눴다.

이번 추진전략은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운영을 위해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체인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운영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첫 번째 회의에서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을 동해안지질공원사무국**에 요청하면서 나온 것이다.

* 경상북도, 동해안 4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 동해안지질공원사무국(지질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관, 경북대 산학협력단 내 소재)

이날 논의된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은 ▷유네스코 인증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국가지질공원 운영의 내실화 추진 ▷선제적인 국내외 관련 동향의 파악과 대응 ▷효율적인 추진체계 확립과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이다.

동해안 4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의 해안과 일부 낙동정맥을 포함해 조성된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2017년에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바 있으며, 전체 면적 2,261km²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구역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처럼 규제가 아닌 지역주민과 탐방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연에 대한 보전가치를 일깨워 자발적인 보전을 유도하는 지질공원은 지역의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의 보전과 관광자원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에서 매우 각광 받고 있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인증 추진을 총괄하게 되며 특히 관련 예산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군에서는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지원과 주민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지원 등 주민협력분야와 안내판과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에 주력하게 된다. 관련 신청서 작성과 실질적인 인증 절차의 수행은 동해안지질공원사무국에서 전담하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절차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도 대략 4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첫 번째 관문인 환경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보지 지정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신청서를 내년 6월 말까지 환경부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인증 후보지로 지정받게 되면, 본격적인 유네스코 신청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2023년에 유네스코로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이듬해인 2024년 상반기에 서류평가와 현장심사를 거쳐 같은 해 하반기에 예비 인증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최종 공식 인증여부는 202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정

기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DI)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지질공원 제도의 도입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내 지질공원 분야 최고 전문가이다.

이수재 박사는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인증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다. 앞으로 성공적인 유네스코 인증을 기대하고, 최종 인증까지 필요한 경우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권경수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장은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세계적인 지역 브랜드 가치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동해안권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군,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최종 인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첨부>

참고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운영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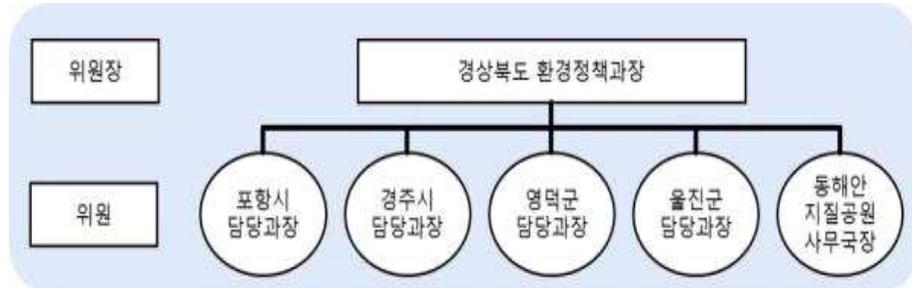
□ 개요

- 목적 : 동해안 지질공원의 운영 주체인 경상북도 4개 시군간의 원활한 의견조율과 협의를 위한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
- 구성 : 위원장(환경정책과장), 위원(시군담당과장 및 사무국장)

□ 주요기능

- 동해안 지질공원 예산운용 및 진행사업의 심의·의결 및 자문
- 기타 동해안 지질공원에 관련된 사항 자문

□ 운영협의회 조직도



보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전략

◆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 (2022. 6월) ⇨ 2025년 인증 목표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동해안 지역의 세계적 자연유산 브랜드 가치 확보를 위해서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이를 관광활성화와 연계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지역관광활성화 기여 가능
 - 청송 세계지질공원 인증('17.05.) 후 관광객 및 소비지출액 증가
 - ※ '19년 외국인 관광객(약 1.5만 명) 전년대비 약 39% 증가

구분	2017년	2018년	자료출처
탐방객 (20%증가)	약 442만 명	약 543만 명	• KT 빅데이터 : 탐방객 휴대전화 위치정보 활용, 방문 현황 추적
소비지출액 (47%증가)	약 496억 원	약 731억 원	•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 : 청송군 관광객 카드 매출액 분석



<청송군 2017, 2018년 관광객 추이>



<청송군 2017, 2018년 소비지출액>

- 세계적 가치를 가진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아 지역 주민 자긍심 향상과 국제적 홍보 효과 기대
-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민소득증대와 고용기회 확대
-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활용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지역주민의 지질공원프로그램 운영참여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 인구감소 및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최소화

추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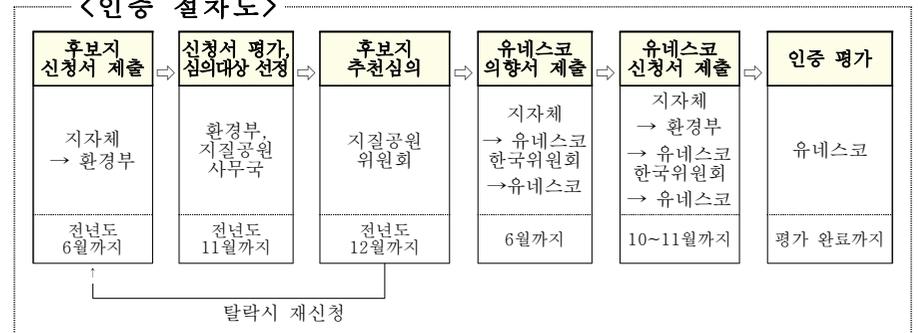


참고 세계지질공원 개요 및 국내외 동향

세계지질공원 개요

- (정의)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과 경관을 보호,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하에 관리하는 장소
- (근거)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침(Guideline for UNESCO Global Geopark)
- (신청자격)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 1년 이상 경과한 공원
※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인증(17.9.13.)
- (인증조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침 내 조건 충족
 - 단일의 통합된 지리적 범위 ※ 미 연결된 복수의 공원 통합추진 불가
 - 국제적인 지질학적 중요성을 가진 지질유산의 포함
 - 지질공원의 보호,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수립
 - 지질유산과 해당 지역의 자연·문화유산과 연계된 활용 등
- (인증규제) 기존 적용받던 국내법* 이외, 별도 법적 규제 없음
* 지질공원 시설 훼손 행위 금지(자연공원법 제36조의8) 및 지역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문화재보호법, 습지보호법 등에 따른 규제는 그대로 적용

<인증 절차도>



■ 국내외 동향

○ 국내 동향

- **국가지질공원의 내실화**를 통한 **세계지질공원 추진**
 - 주민협력, 관리구조 체계화 등 원활한 공원운영 우선(환경부)
 - 추진 여건, 인증 시 예상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공원구역 조정, 학술연구 등 추진 체계 조정 및 보완**
 - 최근 평가 추세에 따른 공원구역 설정(지질공원사무국)
 - 국제적 가치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학술 연구 수행 필요

○ 국외 동향

- **신규 인증 및 재인증 평가에서 보류 및 경고 사례 증가**
 - 관리구조(인력), 재원조달, 인증 후 발전도, 국제행사 참석도 중점 평가
 - 유네스코 중북 지정 지역에 대한 세계지질공원 평가 강화
→ 추진 당위성, 중복 운영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차별화된 운영 계획 등 제시
- **향후 인증평가는 더욱 강화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
 - 역사문화 등 연계자원 활용여부, 주민참여도 등 중점 평가 예정

○ 국외 평가 주요 사례

- **관리구조, 전담 인력 부재·고용 안정화, 재원조달에 대한 지적**
 - 전담 관리조직 부재(프랑스), 인력 고용 불안정(독일) 및 전담 인력 부재(일본), 재정 구조 취약(영국)
 - 유네스코 중북 지정 문제, 발전도, 주민 참여 여부 등에 대한 평가
 - 생물권보전지역과의 차별화 부족(스페인), 주민 미참여(페루) 발전 저조(프랑스, 크로아티아) 등
- **지질공원 관련 국제행사 참석 등 대외활동 관련**
 - 세계지질공원 관련 국제행사 참석 저조지적(그리스, 일본)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7. 25(일)】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소장	최홍집	
	작성자	담당	도한우	담당자	원도연
연락처	054-931-6789				

프리미엄 딸기 ‘알타킹’ 해외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 ‘알타킹’ 싱가포르, 홍콩 등 6개국 수출량 지난해 보다 약18배 증가 -
- 수출딸기통합조직(K-Berry), 프리미엄 수출 딸기로 ‘알타킹’ 선정-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딸기 신품종 ‘알타킹’이 태국·홍콩·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품종 등록 2년 만에 약 37.4톤 수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상반기 싱가포르·태국에 1.9톤 첫 수출을 시작으로 2020년 11월부터 21년 5월까지 싱가포르·태국뿐만 아니라 홍콩·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까지 총 6개국에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물량(약 35.5톤)이 18배 증가했다.

‘알타킹’ 품종은 2019년에 품종 보호등록을 하였으며 과실이 크면서 당도가 높고, 과실 착색이 50% 정도에서 수확해도 당도와 품질이 높은 품종으로 수출용으로 적합하다.

경북 김천에서 알타킹 수출 작목반을 만들어 5.6ha재배 하고 있으며 기존 수출주력품종인 ‘매향’ 대비 과실품질이 좋아서 바이어와 해외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수출요구 발주량을 맞추기도 힘들 정도로 수출시장에 인기가 좋았다.

또한 수출딸기통합조직인 케이베리(K-Berry)에서 해외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위해 프리미엄 딸기 수출 전(全)과정 기반을 구축하는 지원 시범사업에 알타킹 품종이 선정됐다. 알타킹 수출작목반은 프리미엄 딸기의 최

저 가격 설정, 포장용기 개발, 물류체계 개선 등을 지원 받는다.

현지시장조사, 품평회 등을 추진해 선호도를 파악 후 국가별,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현지에 맞는 수출 전략을 세워 알타킹 품종에 대한 소비층을 넓혀 갈 계획이다.

신용습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알타킹 품종이 프리미엄 딸기로서 수출 시장 및 내수시장에서 더욱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고품질 재배기술을 교육하고 우량묘 생산 공급을 확대해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전했다.

<사진 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7. 25(일)】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작성자	과장	최정우		
		연락처	팀장	윤혜정	주무관	김규동

경북도, 폭염 대비 긴급 현장 점검 실시

- 무더위쉼터 및 선별진료소 점검, 취약계층 애로사항 청취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3일 폭염에 대비해 지역 내 무더위쉼터와 선별진료소를 현장점검을 하고, 고령군에서 시범 실시 중인 드론동호회를 활용한 논·밭 영농인에 대한 예찰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무더위쉼터를 집중 점검하고, 무더위에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을 격려했으며 진료소를 찾은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한, 농어촌지역 예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드론 예찰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도 둘러봤다.

경북도는 올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그늘막 확충 ▷야외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취약계층 대상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 ▷드론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예찰활동 실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가설시설물 설치 지원 등 분야에 총 16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김중권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무더위쉼터가 폭염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도 철저히 지켜 주셔야 한다” 고 당부했다.

<사진별첨>

 보도자료 【21. 7. 25(일)】	담당부서	경북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			
	작성자	과장	김대현		
		담당	김현석	담당자	권민경
연락처	053-320-0289				

경북도 육성 포도 골드스위트, 루비스위트 통상 실시 계약

- 농업법인 등 8개 업체와 통상실시 계약, 22년부터 27년까지 12만4천주 보급 -
- 수입포도 대체할 씨 없는 신품종, 당도가 높고 식감이 우수해 젊은층에 인기 -

경북농업기술원은 23일 자체 육성한 포도 신품종 ‘골드스위트’와 ‘루비스위트’를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농업법인 등 8개 업체와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한 8개 업체는 대경포도접목묘영농조합법인, 그린농원, 금릉농원, 김천농원, 김천형제농원, 알프스농원, 색깔포도영농조합법인, 직지농원이다. 통상 실시를 통한 총 판매예정량은 12만 4000주(면적 180ha)로 2022년 2만 주를 시작으로 2024년 8만 주, 2027년까지 12만 4000주를 보급할 예정이다.

※ 통상실시권 : 육성 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이번에 통상 실시하는 고당도 청색품종 ‘골드스위트’와 조생종 적색포도 ‘루비스위트’는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을 가져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착색이 잘 되는 적색 품종 ‘레드클라렛’과 ‘캔디클라렛’ 등도 신속하게 보급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시장은 FTA체결로 인한 수입포도 물량의 급속한 증가와 샤인머스켓 품종의 인기 상승으로 ‘씨가 없고 당도가 높으며 껍질째 먹는 포도’가 호응을 얻으면서 재배농가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품종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포도 샤인머스켓과 수입포도 품종을 대체할 고품질 국산 신품종 육성하여 종자주권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인공교배와 연구 등을 통해 ‘골드스위트’, ‘루비스위트’를 2019년 품종보호권을 국립종자원에 등록했다.

또한 신품종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상주, 김천, 영천 등 포도 주산지에서 농가 실증시험을 통한 맞춤형 재배법도 개발하고 있다.

신용습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통상실시 계약을 계기로 농업기술원과 국내 묘목업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가 좋아하고 수출 경쟁력 있는 우수한 국산 품종을 지속해서 만들고 보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별첨>

포도 도유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체결 계획

- ▶ 국산 포도 신품종의 통상실시 계약을 통한 보급·확대
- ▶ 우수 포도 신품종 조기 보급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 향상

■ 행사개요

- 일 시 : 2021. 7. 23.(금) 14:30~15:30
- 장 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정도(농업기술원장, 계약실시업체 등)
- 주요내용
 - 포도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체결
 - 농업기술원 개발 품종의 보급 상호 지원 협의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4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김현석 팀장
14:40~14:50	인사말씀(농업기술원장)	
14:50~15:00	통상실시 업체 인사말씀	
15:00~15:10	통상실시 대상품종 및 추진경위 설명	권민경연구사
15:10~15:20	통상실시 서명 및 기념촬영	
15:20~15:30	협력방안 토의 및 폐회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1. 7. 25(일)】	담당부서	경북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				
		작성 자	과 장	김대현			
			팀 장	허창석	담당자	최돈우	
연락처	053-320-0359						

소비자, 복숭아 당도 12브릭스 이상 돼야 '달다'

- 경북농업기술원, 대구 소비자 대상 품질선호 설문조사 -

경북농업기술원이 자체 실시한 복숭아 품질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당도 12브릭스 이상 돼야 달다고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지역에서 복숭아 재배면적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9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해 2021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19,475ha로 2009년 대비 50.2% 증가했다.

2000년대 주산지는 영천, 경산, 청도, 충주 등이었지만 최근에는 상주, 김천, 의성 등까지 확대됐다. 이런 복숭아 재배면적의 증가는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와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복숭아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소비자 입맛에 맞는 복숭아 생산을 위한 품질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대구지역 소비자 686명이다.

이번 조사 결과, 소비자의 88%가 복숭아를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복숭아 구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단맛, 색깔, 신선도, 경도(단단함), 크기 등이라고 응답했다.

단맛을 가장 좋아하는 연령대는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30대 이하는 아삭한 식감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반면 40대 이상은 부드러운 식감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80%가 좋아하는 당도를 측정한 결과, 조생종은 12.0브릭스 이상, 중·만생종은 12.6브릭스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시식에 사용된 당도 범위는 8.6브릭스에서 15.1브릭스까지이다.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미황, 조황, 수황, 홍백, 진백 등 고품질 복숭아 신품종을 육성했으며 이러한 품질선호도 분석을 적극 반영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육성, 보급할 계획이다.

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선호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소비자 입맛에 맞는 품종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복숭아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농가에서는 품종별 적기 수확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설문조사와 관련해 먼저 소비자에게 복숭아를 보여주고 외형 평가를 하게 한 후 시식을 통해 맛을 평가하고 이후 정성적인 설문조사를 했다. 시식한 복숭아 일부를 회수하여 당도, 산도 등을 측정했다. 시식에 사용된 복숭아 품종은 금황, 수황, 홍백, 천중도백도, 장호원황도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7%이다.

<사진 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7.25(일)】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과 장	임 동 혁		
		작 성 자	사무관 이 중 현	담당자	김숙현
연 락 처	054-880-3223				

경북의 아들 김제덕, 남은 금 2개도 싸라

- 이철우 도지사, 김제덕 선수의 부친 김철규씨 만나 축하·격려 -
 - 대한민국 첫 금메달, 최연소 금메달 획득 축하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7월 25일 오후 2시 예천군청에서 제32회 도쿄 올림픽 양궁 혼성단체전에 출전하여 한국의 첫 금메달이자 최연소 금메달을 획득한 김제덕 선수의 부친(김철규씨, 50)을 만나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축하 자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예천군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김제덕 선수의 부친 김철규씨를 만나 “김제덕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여 최연소의 나이로 대한민국 첫 금메달을 안기는 쾌거를 올렸다. 경기 내내 힘찬 목소리로 ‘코리아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너무 자랑스러웠다”면서,

“26일 열리는 남자단체전과 31일 열리는 남자 개인전 역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300만 경북도민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철규씨는 “열심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하게 돼 매우 기쁘고,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하여 더 좋은 결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사진별첨>

제32회 도쿄올림픽 출전 양궁 국가대표 혼성단체전(김제덕선수) 금메달 획득 격려 계획

■ 축하계획

- 일 시 : 2021. 7. 25.(일) 14:00
- 장 소 : 예천군청 군수실
- 참석인원 : 11명 정도
 - 지사님, 예천군수, 김제덕 선수 부친, 예천군체육회장 등
- 내 용
 - 최연소 대한민국 첫 금메달 획득한 김제덕 선수 축하 및 격려

■ 혼성단체전 선수현황

소 속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경북일고		- 2019 유스양궁세계 선수권대회 금2, 동1 - 2020 제47회 한국중고 양궁연맹 회장기대회 금2, 은1, 동2 - 2020 도쿄올림픽 양궁 혼성단체전 금메달 * 최연소 대한민국 첫 올림픽 금메달 획득	
	김제덕(18세)		
광주여자대학교		- 2019년 아시아선수권 여자 단체전 금메달 - 2019년 도쿄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개인전 금메달 - 2021년 아시안컵 단체전 금, 개인전 은, 단체 혼성전 금메달	
	안산(20세)	- 2020 도쿄올림픽 양궁 혼성단체전 금메달	

※ 김제덕 선수 남은경기 : 남자단체전(7.26.), 남자 개인전(7.31.)

 경상북도	보도자료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21. 7. 25(일)】	작성 자	과 장	이 도 형	
	연 락 처	팀 장	김남주	주무관	김명희
			054-880-3781	054-880-3783	

경상북도, 사회적모임 '3단계' 격상...전국 동일

- 7월 27일부터 8월 8일 까지 2주간 -
- 인구10만 미만 시군은 자율적 운영 -

경상북도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중대본과 협의하여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경상북도 12개* 군지역에서 영주시, 문경시가 확대적용 되어 14개 시군에서 실시된다.

*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이철우 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개편안 시범실시를 제안하여, 4월 26일부터 12개 군에서 시범 실시 중이며, 12개 군에서는 지난 26일간 총 24명, 일일 0.9명이 발생하였다. 청송군 주왕산면에서 5월 7일 수도권 확진자 접촉으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확산을 차단하였다. 시범실시 이후 경북 12개 군 지역은 식당, 카페 등 자영업 매출 증가로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미실시 11개 시군에 대한 확대적용을 검토하였고, 코로나19가 안정된 영주시, 문경시 시행을 중대본과 협의하여, 5월 24일부터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로 5월 중 영주시는 총8명 일일 0.4명이, 문경시는 총 5명으로 일일 0.2명이 발생하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실시로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며, 영주시와 문경시의 확대실시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며,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 방역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고 밝혔다.